

저고위-중기중앙회 출생·돌봄 공동세미나 6월 중 개최

-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,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예방 -

-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 부위원장은 13일 오전,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을 예방했다.
 -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17일 부위원장 취임 이후 첫 기업단체 방문으로, 저출생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.
 - 김진오 부위원장과 김기문 회장은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고,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일터 문화를 조성·확산하는 것이 저출생 대응의 핵심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.
 - 아울러, 양 기관은 사회적 인식 변화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출생·돌봄 정책 발굴 등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6월 중 개최하기로 했다.
- 김기문 회장은 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‘인구전략위원회’로 확대·개편되는데, 김진오 부위원장은 오랜 언론계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수행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”며,

- “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세제·재정 인센티브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- 김진오 부위원장은 “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현장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”며, “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일·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문화가 현장에 정착돼야 한다”고 중소기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.
- 이어 “위원회는 중소기업계가 인력난과 비용 부담으로 일·가정 양립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, 관계부처·지자체·민간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- 한편, 위원회는 올해를 대한민국 ‘인구정책 전환의 원년’으로 삼아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.
- 또한, 인구문제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를 위해 5월 11일부터 「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·슬로건 공모전」을 개최하고 있다.

붙임: 현장방문 사진(중소기업중앙회 제공)

담당 부서	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업지역협력과	책임자	과 장	박성근 (02-2100-1234)
		담당자	서 기 관	염정수 (02-2100-1235)